

육계산업발전을 위한 우리의 개선책



일시/1988년 4월 1일
장소/축산회관 회의실

참석자 (무순)

윤효직: 건국대학교 부총장, 축산경영학과 교수
김인식: (주)머원 사료사업 본부장, 상무이사

이희훈: 현대양계 주안
유철호: 농경연 축산개발실장
강희구: 서울 경기 양계 협동조합장
성낙규: 두산곡산 사료관리부장
조성남: 신기농장 기획실장
강석부: 부영농장 대표, 본회이사
김홍국: 하림식품 대표
김창운: 신기농장 전무

이인형: 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장
전진수: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류종래: 가금처리협회장, 류성브로일러 대표
장민기: 버들농원대표 본회부회장
황인옥: 본회전무
김익래: 공인회계사, 세종회계법인 대표
사회/박영인: 미국사료곡물협회장

지난 4월 1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3월 20일 미국 육계산업을 시찰하고 돌아온 시찰단과 육계관련자들을 초빙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재조명되어야 할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 하였다. 본고는 이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었다.

10년간 말만 되풀이 되고 있다.

사회: 현재 육계산업은 사활의 문제가 걸린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10여년간을 같은 말만 되풀이 해왔을 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미국 육계산업을 시찰하고 오신

여러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신 소감을 토대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하나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침몰할거라는 위기의식 느껴

윤효직: 미국 브로일러산업 시찰에서 느낀 것은 미국 양계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적절한 대응책이 없으면

침몰할거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읍니다.

미국의 특징은 도계장이 생산조절기능을 맡고, NBC는(미육계협회) 수요창출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해 소비는 증가하고 완전계열화 생산으로 생산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육계산업발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공급의 안정화를 시도해야 하며 수요창출을 위한 노력을 보다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돼지고기보다 비싼 닭고기

이인형 : 우리 육계산업이 어려운 상태로 와 있는 것은 첫째, 가격진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이 싸지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사게되지만 비쌀때는 구입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진폭이 심한 관계로 가공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가공산업이 발전도 못하고 품질개선도 이루지 못해 소비자가 원하는 육질을 공급하지 못하므로 소비증가가 되지 못해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개념으로 육류 중 닭고기가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나라만은 돼지고기보다 비쌉니다. 각 농가별로 생산비가 kg당 150~2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발전이 어렵다고 봅니다.

육계산업이 얼마나 지속 될지 의심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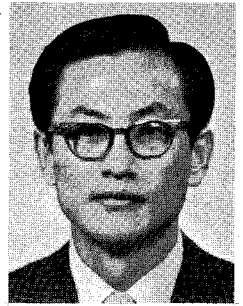
사회 : 지금까지 국제경쟁력 강

화와 생산비 절감 방안은 농장안에서 생산비를 낮추면 된다는 식으로 강조가 되어온 것이 현실인데 사실 농장안의 기술, 경영의 문제는 육계산업이 존속하는 한 끝까지 남아 있게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장기적인 공생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세계문제, 위생문제, 중간과정마다의 이윤문제, 낭비적인 요소제거 등 농장밖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육계산업이 얼마나 지속될런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혁신적인 돌파구가 없다면 육계산업은 결국 죽게 됩니다.

미국과 태국산 닭고기 먹을날 멀지 않았다.

김인식 : 사료산업은 육계산업과 상대적 개념의 사업장입니다. 육계산업과 관련된 독립사업체가 생산, 도계, 사료, 제약 등 10가지 정도인데 각자가 최대 이윤을 위해 서로 빼내기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익은 간데없고 서로가 손해만 보아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이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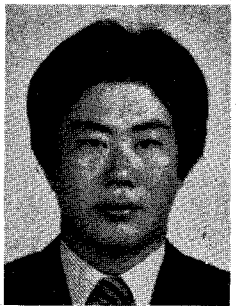
육계 생산비가 650원대이면 일본에 수출도 가능해지는데, 750원이 넘으면 태국과 미국에게 시장을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2년 이내에 외국 닭고기에게 우리의 시장을 잠식당할 거라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육계업자들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원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집합점을 도계장으로 보고, 도계장이 부실하기 때문에 도계장이 정상화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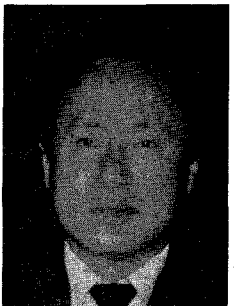
윤효직 교수



김인식 본부장



이희훈 주간



유철호 실장

야 우리사료업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개의 도계장을 선정하여 도계장을 지원하여 유통에 관계하도록 만들어 주어 지역별계열화(Local intergration)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도계장 정상화 되어야

이희훈 : 저도 도계장을 중심으로 육계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계장이 단순히 수집분산의 역할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계장을 정상화 시키지 않는한 한국 육계산업은 발전이

도계장이 단순한수집 분산의 역할만 해간다면 한국의 육계산업은 발전이 어렵다.



강희구 조합장



성낙규 부 장

어렵습니다. 현재 자가도계비율이 27%이고 위탁도계가 73%로 거의 위탁도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고 있어 위생계육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유철호 : 미국의 경우는 돈많은 사람이 계열의 주체가 되었읍니다. 우리도 도계장 하는 사람이 돈을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 계열주체가 되었을 경우 성공여부하기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육계산업 총 투자액의 1/2이상이 농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계열주체가 직접 생산부문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 사육농가와 계약을 하고 사육농가가 자금을 신청하면 용자가 여러곳에서 나와 농가자담을 15%정도만 가지고도 생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과 제품판매는 계약회사가 합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결해야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한데 그중에서도 육계산업이 제일 취약합니다.

먼저 가격이 불안정하고, 사육기간이 짧아 쇠고기, 돼지고기보다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자 수가 적고, 전통적으로 중요성이 소보다 낮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인데 먼저 계열화에 신경써야 하리라 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위생처리에 대한 감독강화 문제, 유통과정의 위생처리 문제, 생산조절을 위해 계약

사육할 경우 생산자단체를 지역별로 자금지원하는 문제, 가공분야의 제품판매 등의 문제에 신경써야 될 것 입니다.

한국형 계열화 해야

강희구 :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각기 생산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계열화와 유통계열화' 2가지로 나누어 부분계열화 상태로 시도해야 합니다.

생산계열화는 협동조합에서하여 생산조절기능과 출하조절기능을 발휘하고 유통계열화는 도계장을 축으로해서 하는데 도계장은 제품의 상품화와 판매체계 확립도 해야 합니다.

유통이 중요하다

성낙규 : 사료업계의 기반은 축산이기 때문에 축산업이 바로 서 있어야만 사료산업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관련사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공존시스템이 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온 것중 하나가 계열화 입니다. 사료가 계열주체가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유통의 문제입니다. 유통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큼니다. 때문에 도계장이 유통에 참여해서 애플 먹고 있습니다.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서 유통을 바로 잡아야 소비홍보도 되고 홍보효과도 나타날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에 경험이 있고 자본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해서 계열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남 : 그동안 부실에 허덕여 온 도계업체가 자본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열의 주체는 상업자본을 많이 소유한 유통업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기단계에서 부터 미국식의 완전계열화를 따르는 것 보다 일본의 기능별로 되어있는 계약적인 몇개의 독립된 것이 모인 방식을 따르는게 바람직하고 도계장의 경영분석 측면에서 볼때 60개의 도계장은 너무 많기 때문에 도계장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돈많은 계열주체 나와야

강석부 : 계열화에 참여도 하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유는 계열화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누가 계열의 주체가 되느냐 보다는 돈이 있어야 위생도계와 계열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력을 지닌 회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겠고 또 지금까지는 정부의 육계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비하였는데 과감한 지원과 위생검사를 철저히 실시했다면 도계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으로 도계장을 정상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도계장 중심으로 육계산업 발전되어야

김홍국 : 계열의 주체는 반드시 도계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계열의 주체가 연구노력해서 계열화를 함으로써 새로이 원가절감을 창출시켜야 합니다. 사양가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영원히 기술면은 개발되어야 하고 비중도 적지만 유통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문제는 유통에서 기술적으로

단계를 줄여서 원가절감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료유통 부분에서 12%가 흘러나가는데 앞으로는 사료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도계수수료 인상해야

김창운 : 유통주체가 도계장이냐 중간상인이냐에 따라서 상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표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윤만 추구하여 닭고기의 품질이 저하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계장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도계업체가 그동안 많은 손실을 보아서 정책적 지원자금이 있어야겠고 평균 깃가의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야 위생적인 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개방을 대비하여 우리제품이 우수하다는 소비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차원의 제조·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시설개선 자금지원이 있어야 하고 또한 양계협회 등 공공단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비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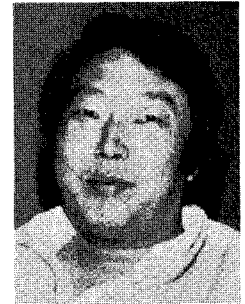
중간상인에 끌려다니는 도계장이 문제

전찬수 : 75년 「위생처리법」이 확정되어 86년 9월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발동하였는데 앞으로는 도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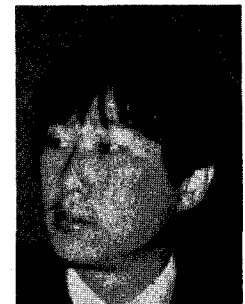
저는 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계장이 중간상인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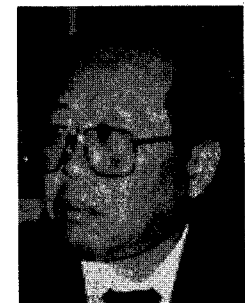
조성남 실 장



강석부 이 사



김홍국 사 장



김창운 전 무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육계산업의 문제점이 풀려 나간다.



이인형 과 장



전찬수 과 장



류종래 회 장

위생도계육을 유통시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고 소비를 증대시키려면 스스로가 자금을 확보해서 체인을 가지든지, 도계장이 유통의 최일선으로 생각하고 일하기 전에는 정상화 되기 어렵습니다.

또 상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게하기 위해서 포장제도를 채택 하였는데 실제 새벽 1~2시에 도계하여 새벽에 심부온도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출하하니깐 빨리 썩기 때문에 포장을 뜯게되어 실제 밀도계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보호하고 유통구조도 개선할터

류종래 : 가금처리협회는 작년에 설립하여 아직까지는 유치원생입니다. 그리고 회원 중에는 가금처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인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급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뭉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표를 붙여 도계장 이름으로 물건을 팔자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통 문제에 부딪치게 되어 상인과 마찰이 생기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여 30%가 자가도계로 전환 되었습니다.

82년 털만 뽑아주고 110원이었는데 그후 냉각기, 제빙기 등 많은 시설의 추가부담과 인건비 상승이 있었지만 아직도 도계비는 묶여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소비자 홍보 등 여러가지 면에서 활성화 되도록 선구적인 노력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보호하고 유통구조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 도계장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는데 동감입니다. 개선하는데 접근하는 방법과 순서,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방안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기구 만들자

김홍국 : 오늘 모임이 돌파구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육계생산원가는 세계적으로 높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0~25%는 바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 의견을 한자리에서 수렴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업계에서 신망있고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추진기구를 만들어 연구하면서 점진적·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뭔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우리 업계는 우리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김인식 : 폭넓게 참여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육계산업과 관련되는 모든 산업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람끼리 모여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후 모임의 방향을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철호 :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 같은 기구가 생겨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김익래 : 각 업계별로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문기관이 주관해서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 파악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민기 :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후의 일이고 우선 산과역을 어느 단체가 맡아 조직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형 : 양계협회내에 육계와 산란계 가격안정대책 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사료, 도계분야 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보강하여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도계협회에 대책기구 두면된다

김인식 : 육계산업의 아랫쪽을 생산자로 보지만 실제 흐름은 소비자입니다. 그 바로 위가 도계이며 전체 구조를 보면 도계장이 가장 중요하면서 취약합니다. 조직적·사무적인 문제가 있지만 의욕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분야보다 크니까 양계협회가 사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금문제는 단순한 협조가 아닌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구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종래 회장님께서 이제까지 양계산업에 몸담으셔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지만 한번 더 앞장서서 일해주시면 합니다.

황인옥 : 실제 자기앞에 이해관계가 놓여 있고 사활이 걸려있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일하면 추진력이 크리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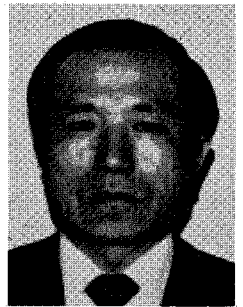
3자 회담에 위임하자

류종래 : 육계에 관계되는 모든 산업은 우리 가정이라 생각하고 자기일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더 큰 이익이 오는데 그것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사람이 참여하여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양계협회, 미국사료곡물협회, 가금처리협회에 일단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자가 다시 의논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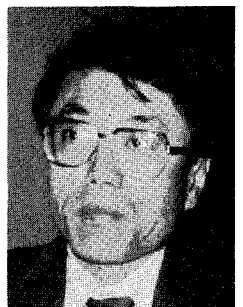
사회 : 양계 산업이 생존하여 가는데에는 우선 생산된 산물이 어려움 없이 소비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는 부분별로 생산비의 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제는 외세의 압력에 의한 시장개방이 밀어닥치는 때이고 보니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대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계산업에서 문제가 가장 큰 유통부분이 우선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정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육계산업하면 유통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만큼 비중이 커졌는데 필요성을 느끼는 육계관련 단체와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연구해 간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합니다. 서로가 모여 의견을 좁혀간다면 현재 업계에 있는 단체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해 주신 문제들은 우리 양계업계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로서 이번 기회에 생산자들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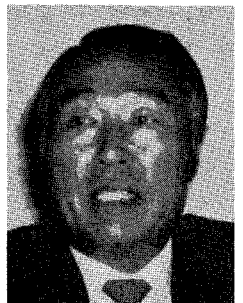
장민기 부회장



황인옥 전 무



김익래 회계사



박영인 회 장